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특별시, 글로벌 문화수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김상욱 전당장과 차담을 했다. 이에 앞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을 글로벌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새로운 전환을 선언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형 문화경제 도시를 목표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 최대 문화프로젝트였지만, 그동안 정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속도가 더뎠다”며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았고 올해 광주·전남 통합을 앞둔 지금이 새로운 도약의 적기”라고 밝혔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 ‘광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대해 본격적인 글로벌 문화수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지사는 “통합은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문화수도의 규모를 확장하는 계기”라며 “광주와 전남의 역사·예술·해양·생태 문화자산을 연결해 세계가 찾는 문화권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금남로 일대를 예술복합단지로서 재편하는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The Great Culture Street)’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을 유지하고, 평화미술관 건립과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창작 레지던시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전시관, 유치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등을 연계한 세계적 문화벨트인 ‘K-아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도시 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전남광주 행정통합 홍보를 위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 김상욱 전당장과 차담을 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행정통합 계기 외연 확대 비전 제시
금남로 일대 예술복합단지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 조성
광주 중심으로 나주·목포·여수·순천·광양 광역 문화권 연결

체성을 강화해 ‘K-콘텐츠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을 제작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동시 개최를 통해 세계 3대 비엔날레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또한 한강 작가를 비롯한남도 문화와 예술 자산을 활용한 ‘메가 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해 공연·전시·문학이 결합한 복합 문화콘텐츠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시·공연 도시를 넘어 창작·제작·산업이 선순환하는 문화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술가가 모이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전국 유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임에도 민간 투자가 저조한 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강화해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조 원 규모 문화부흥펀드를 조성해 문화예술 스타트업과 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구도심 빈집·공터를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 문화콘텐츠 대기업 유치와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또 현재 50%인 국가지원을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책사업에 걸맞은 재정지

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1+5 문화수도 비전’을 수립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역사문화), 목포(근대문화), 여수(해양문화), 순천(정원문화), 광양(미디어아트) 등 전남 5개 도시 구도심의 고유 문화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하나의 광역 문화권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김영록 지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외연 확대와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특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쉽게 포함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반영시키고 2031년 종료 예정인 특별법 기간도 연장해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서구, ‘제32회 서구민상’ 주인공 찾습니다

사회·봉사 등 4개 부문, 3월31일까지 후보자 추천받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주민들을 발굴해 ‘착한영웅’으로 선정하는 ‘제32회 서구민상’ 수상자를 찾는다.

시상 부문은 ▲사회·봉사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교육·문화·체육 ▲지역·경제 총 4개 부문이며 부문별 각 1명씩 선정한다. 동일 공적으로 2인 이상이 해당될 경우 공동 또는 단체 시상도 가능하다.

후보자 자격은 공고일(2.19) 기준 3년 이상 계속 서구에 거주했거나 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구민이다.

다만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후보자 추천 기한은 3월31일까지이며 추천서,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행정지원과(062-360-7792)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제32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진희 행정지원과장은 “서구민상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을 기리는 상”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년간 주민 83명과 13개 단체에 ‘서구민상’을 수여했다.

/박석우 기자

북구, 올해 교통안전 강화에 ‘88억’ 투입한다

2026년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88억 원을 투입한다.

북구에 따르면 “2026년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교통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전년 대비 교통사고 10% 감축, 교통사고 사망자 수 13명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제로) 유지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중점과제 3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은 무장애 정류장 확대 조성, 교통약자 이동 편의 특화 거리 조성 등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에 더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개선 및 CCTV 설치,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는 43억 4천여만 원이 활용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시설 3개소 확충(20억 원) ▲도로 및 보행로 유

지 관리 및 정비(12억 6천만 원) ▲표지판 정비 및 차선 도색(3억 6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스쿨존·횡단보도 등 취약지 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차 단속에 예산 15억 원을 편성해 안전한 주차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및 사망자 감축을 위해 북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안전협의회, 합동 캠페인 등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작년보다 더 나은 교통안전 지표를 얻을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기초지자체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관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와 구비 1억 540만 원을 투입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남구는 이번 공모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국비 4,540만 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구비 6,000만 원을 더해 관내 장애인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올해 관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남구,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

국비 포함 1억 540만원 투입, 22개 프로그램 운영

지난 2022년부터 5년 연속 선정 ‘평생학습 고도화’

램은 문화와 예술, 디지털, 직업 역량 등을 연계한 22가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남구는 오는 3월부터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남구 장애인체육회, 차오름 문화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10개 기관과 함께 디지털 놀이터를 비롯해 아트 놀이터, 배움 플러스,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까지 4대 분야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놀이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과 코딩, 3D 펜, 드론 등 디지털 미래 기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3가지를 선보인다.

아트 놀이터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술 교실을 비롯해 악기 연주와 공예 체험, 앙상블, 마을소리 난타 등 1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배움 플러스 분야에서는 인권 영화 제작과 바

리스타 양성 과정, 백발백중 한국 교실, e-스포츠 교실까지 개인의 흥미와 강점을 반영한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위해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다락방 등 2가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구청에서는 관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을 통해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